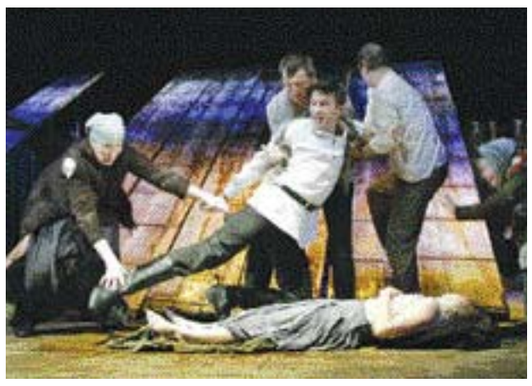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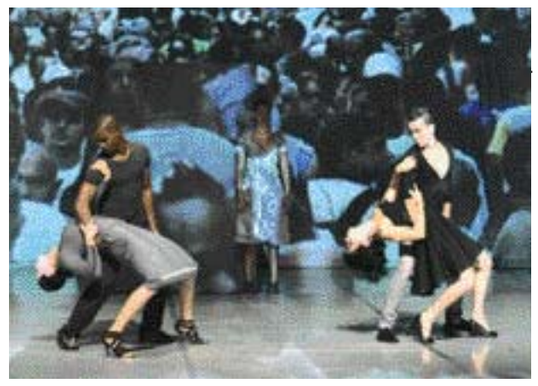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 '스톰'

뮤지컬 '잭 더 리퍼'


쿠바 무용단의 'Malson'

2010광주국제공연예술제 무용·뮤지컬 연극 등 16개 작품 확정

풍성한 공연 골라보는 재미

10월1~16일 문예회관·빛고을시민문화관

충장로·금남로 등서 거리공연도

폐막작 러시아 연극 '스톰' 눈길

'풍성한 상차림, 골라보는 재미.'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2010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10월1일부터 1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재)광주공연예술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무용, 뮤지컬, 연극 등 16개 작품이 공연된다.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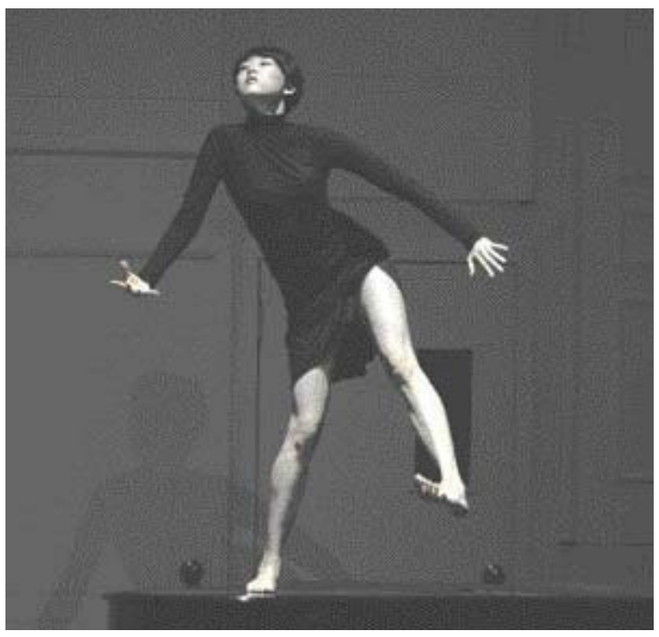
연극과 무용을 특화시킨 이번 예술제에서 눈에 띄는 건 폐막작으로 선정된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 '스톰'이다. 광주에서 첫선을 보이는 러시아 정통연극으로 카리노프카라는 조그만 도시를 배경으로 19세기 무렵 러시아 상인 계급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동명의 세익스피어 희곡을 유쾌하게 비튼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도 놓치면 아까운 작품이다. 서양의 희곡에 한국 전래의 해학과 육담을 섞은 '한여름밤의 꿈'은 유쾌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이다.

전미숙현대무용단의 '울지마세요'는 지난해 타계한 세계적 안무가 독일의 피나바우쉬의 예술적 작업에 대한 헌사를 담아 제작한 작품으로 삶의 화두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또 김매자 교수가 이끄는 '창무회'의 '심청'은 국내 한국무용계의 일획을 그은 작품으로 판소리와 어우러져 색다른 감흥을 전하며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소재로 한 이영애무용단의 '소제의 바이올린'은 정율성의 딸 소제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발레로 풀어낸 작품이다.

그밖에 쿠바의 무용단이 참여하는 'Malson'은 다양한 비디오 그래픽을 응용한 영상이 춤과 어우러진 작품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아시아의 참춤'은 아시아 10여 개국의 민족무용을 소재로 한 공연이다.


전미숙현대무용단 '울지 마세요'

극단 '죽죽'의 '멕베스'는 극단 76 출신으로 확고한 연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낙형 연출이 세익스피어 희곡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가장 대중적인 작품인 뮤지컬 '잭 더리퍼'는 1888년도 런던에서 처참히 매춘부들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잭을 소재로한 뮤지컬로 유준상·안재욱·신성우·김성민 등 호화 캐스팅이 눈에 띈다.

지역과 아시아 배우·스텝의 공동작업도 눈길을 끈다. 한·중·일 공동제작극인 '그대 이름은 오델로'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정치적 혼란기에 지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한 인간의 역정을 그린 작품으로 '화려한 휴가'의 김정숙 작가, 권호성 연출이 함께 참여한다.

또 극단 초인의 양정웅씨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은 아시아 7개국 청년아티스트들이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평화와 꿈을 주제로 구성하는 공동 프로젝트형 퍼포먼스이다.

▲다양한 거리공연, 비닐하우스 극장 운영

공연장을 벗어나 충장로와 금남로, 광주 천변, 광주역 등에서는 유쾌한 거리 공연이 열린다. 프랑스의 뤼삐에톤 극단의 '카밀라'는 얼굴 없는 남자가 애벌레처럼 생긴 회색 주름통 안에 들어가 신비롭고 우아한 몸동작을 통해 관객들을 경이로운 초대한다.

영국 바퀴거리극단의 '클리프 행어'는 떨어지는 빌딩,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탈출, 슬랩스틱 유머, 라이브 피아노 반주와 함께 펼쳐지는 무성영화 스타일의 공연이다.

사회적 예술기업 '노리단'의 '고래의 꿈'은 대형 퍼레이드 작품으로 관객들과 도로, 건물이 모두 거리극에 활용되며, 관객들은 고래몽과 여행하는 거리위에서 한바탕 꿈과 소통을 나누는 거리극 축제이다.

문예회관 광장에서는 비닐하우스 극장 '풀뿌리'를 운영한다. 12m×25m(200석 규모) 규모로 설치되는 극장안에서는 부대행사 및 다양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티켓 가격 S석 2만원, A석 1만원.(잭 더 리퍼 제외)이며 무용패키지(5작품·5만원), 연극패키지(4작품·4만원), 조기예매 할인(9월15일까지 30%)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마련돼 있다. 문의 062-511-1260. http://www.gjpaf.or.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추상미술의 과거·현재 한 눈에

에뽀끄전 18~9월8일 은암미술관

'쉼표' 주제 김종일 등 40여명 참여

광주 추상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에뽀끄(이사장 최석현)는 18~9월8일 광주시 동구 대의동 은암미술관에서 단체전을 연다.

지난 1964년 출범한 에뽀끄는 구상회화가 압도하고 있는 광주 화단에서 추상미술의 씨를 뿌리고, 역동적으로 작품 활동을 벌여온 추상미술의 산실이다.

이번 전시에는 '쉼표'라는 주제로 김종일·우제길·박소빈·최재창·임수영·박유자·임병중·임수영·이매리·조주남·안진성·기옥란·김익모·노정숙씨 등 4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2부로 나뉘어 1부(19일~26일)에는 50~60대 작가, 2부(30일~9월 8일)는 30~40대 젊은 작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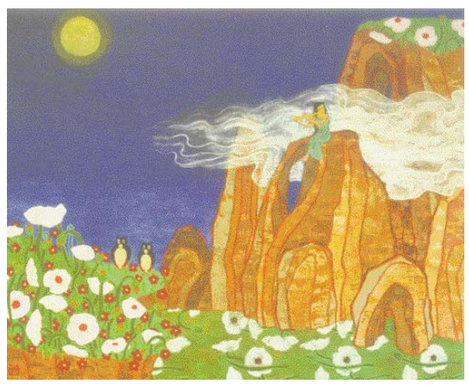
최석현 에뽀끄 이사장은 "지역 현대미술 발전을 위해 에뽀끄가 창립된 지 어느덧 반세기란 시간이 지났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단법인 미술단체는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사단법인화된 에뽀끄회는 현재 회화·조각·설치 분야에 걸쳐 100여명의 작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현대미술전을 비롯 정기회원전, 미술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 연구·평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062-231-5299.

양해웅 작 '두 사람 얼굴 하나'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일권 작 '도원의 원숭이'


강은주 작 '나의 피리소리를 들어보세요'

복숭아밭에서의 유희·나를 찾는 여행

윤일권·강은주씨 24일까지 서울 갤러리라이트서 전시회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부작가 윤일권·강은주씨가 오는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분관인 갤러리라이트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윤씨는 '유희'를 주제로 복숭아 나무에서 노닐고 있는 원숭이를 담은 아기자기한 작품을 선보인다.

노란 바탕에 붉게 물든 천도복숭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나무를 자유롭게 오가는 다양한 원숭이의 몸짓과 표정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 또 운주사의 풍경을 단아하게 묘사한 '운주사' 연작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강씨는 '여행'을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형상화한 신작을 전시한다. 산, 해, 달, 새와 꽃이 안정적인 구도 안에 담겨있고,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이 곁들여졌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북경 중앙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윤씨는 7차례 개인전을 갖고, '한국화 동질성'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나온 강씨는 광주교원예술제, 여류화가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